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
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7월 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30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과장 서덕호(044-203-5620), 서미주 사무관 (044-203-5625)

산업부, 업계와 주요 통상현안 논의

- 제3차 통상산업포럼(산업부·무역협회 공동)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윤상직)와 한국무역협회(회장: 김인호)는 6.30일(화)에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**'제3차 통상산업포럼'을 개최하여 한-중 FTA, 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 등 주요 통상현안에** 대해 논의함

< 제 3차 통상산업포럼 개요 >

▷ 일시 및 장소 : '15.6.30(화) 14:00~16:00,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

▷ 안건 : ①통상산업포럼 운영 결과, ②한-중 FTA 보완대책, ③신규 FTA 추진 동향 및 향후계획, ④TPP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

▷ 참석자 : (산업부) 장관(공동위원장), 통상차관보, 통상정책국장, FTA 정책관, 통상국내대책관 등 (업계) 무역협회장(공동위원장), 대한상의·전경련·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대표, 한국석유화학협회, 전국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협회·단체 대표, KOTRA 사장 등

※ 통상산업포럼은 **산업-통상 연계 강화**를 위해 '13.5월 신설되었으며, 현재 총 24개 업종별 분과회의를 두고, 업계·정부가 소통하는 채널임

□ 금번 회의는 **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**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서, **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FTA 네트워크 활용, 신흥국과의 신규 FTA 추진, TPP 대응 등에** 관해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음

□ (**한-중 FTA 경쟁력 강화대책**) 산업부는 **대책**(6.4일 국회제출)의 주요 내용을 **설명**하고 한중 FTA가 **취약 부분의 경쟁력 제고**와 **중국 내수시장 진출**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함

○ 정부는 **피해 중소기업** 및 **취약 부문**에 대한 **정책자금 지원**을 확대하여 피해기업의 **경영안정**과 **사업 전환** 및 **경쟁력 제고**를 지원하고

* 중소기업 산업전환 지원(10년간 2,600억원 증액), 긴급경영안정자금(10년간 500억원 증액),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(10년간 3,000억 신설)

○ **중국시장 진출**을 위한 **공통애로기술** 등의 **선제적 기술개발**, 제조 공정혁신 지원 등 **업종별 체질개선**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

○ 또한, **중국 기술규제**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한 **비관세 장벽 해소**와 **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**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

* 한·중 TBT 종합지원센터 설치,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·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, 중국내 인증 획득 지원 확대 등

○ 업계 참석자들은 한-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**조속한 국회비준 및 발효를 위해**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,

- 전기산업진흥회 장세창 회장은 "전기 분야의 한-중 FTA 협상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준 노력 덕분에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준의 양허를 얻어냈다고 평가함

□ (**신규 FTA 추진**) 산업부는 "신FTA 추진전략"의 일환으로 금년 중 **한중미, 한에콰도르 FTA를 먼저 추진하는 한편** Mega FTA 대응,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등 지난 4월말 발표한 신FTA 추진전략의 주요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

○ 한중미 FTA*는 지난 6.18일 협상개시 선언이후, 1차 회의 개최를 협의 중이며 한에콰도르 무역협정**(TA)은 에콰도르 측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할 예정임

* 중미 6개국은 인구 4,350만명, GDP 2,098억불의 시장이며, 우리나라와 교역액은 ('04) 2,673백만불 → ('14) 5,002백만불로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

** 에콰도르는 인구 1,560만명, GDP 1,005억불의 시장으로,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('16) 399백만불 → ('14) 1,154백만불로 약 3배 증가

○ 특히 금번 한중미, 한에콰도르 FTA는 **상대국의 경제·산업발전을 지원**하고 이를 통해 우리 **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상생형 방식으로 추진** (비즈니스 촉진 작업반 설립·운영 등)함으로써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

-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은 중미 6개국은 연간 17만대의 자동차 수요지역이며, 국산차 수출의 14.3%(537백만불('14))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시장이라며, 신규 FTA추진에 기대감을 표시함

- 다른 업계 관계자들도 신흥시장으로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반색하면서, 신속한 추진을 요청함

□ (TPP 대응) **미 의회의 TPA(무역협상촉진권한) 부여 법안 통과에** 따른 TPP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, **TPP에 대한 우리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**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됨

○ 업계는 TPP 타결후 협정문이 공개되면, **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** TPP 가입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건의함

○ 이에 정부는 업계의 건의대로 **중장기적 관점에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(Global Value Chain) 등 우리 산업별 영향분석**이 필요함을 강조하고, 향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, 공청회, 국회보고 등을 거쳐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임을 언급

□ (통상산업포럼 운영) 그 동안 통상산업포럼은 **약 80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**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, 유관정부부처 및 협상단에게 전달하는 회의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,

○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통상정책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과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방안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

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교역 둔화 등 우리의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**우리 경제가 FTA 활용과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 돌파구를 찾도록** 정부-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고,

○ 앞으로, 통상산업포럼이 통상정책 분야에서 **정부와 업계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** 보다 충실히 수행토록 당부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서덕호 과장(☎ 044-203-5620), 서미주 사무관(☎ 044-203-56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